

다산포럼

김정남



다산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되지만 목민관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된다"(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고 했다. 민주화의 제도적 완결이라 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언 15년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다산선생의 뜻과는 달리 목민관 자리는 처음부터 지역주의 정지에 걸리는 사람의 자리가 되었다. 먼장감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 면장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절반 잘 되면 시장·군수도 되고, 도지사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거기다 언제부터인가는 시장이나 지사가 되는 것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처럼 되어버렸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자리조차 아무나 할 수 있는 만만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언론에 거명되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한류 끼어들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나도 한 번 해보겠노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쇼'가 한창이다. 그들이 파는 논리가 가관이고, 그들이 하는 짓이야말로 팔불출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대중화된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功)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대통령을 잃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리 트루만은 그 뒤 방황연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국민을 다스릴 올바른 지혜를 주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바쳤다. 그는 대통령직을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알거나 하느냐

여기서 끝나다(The bucks stop here)"는 경건·엄숙한 자세로 수행하여 뒷날 성공한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더 나아가 한나라의 영고흥망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과 고독한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건하게 알고 있다면 어찌 한 순간인들 기도하는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군들한테서는 그런 책임감과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다만 '안 되면 말고'식의 무책임임과 천박한 권력지향만이 있을 뿐이다. '저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말하

고 싶은 사람뿐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제쳐 놓더라도, 그들이 과연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어떤 나라이며, 어디로 가야할까 고뇌해본 적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나라는 불과 50여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인구 4천8백만의 대한민국 수출액량 3천2백억 달러는 52개국, 8억 인구의 아프리카와 35개국, 4억 인구의 남아메리카 수출액보다 많다. 정치자유는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 앞서고 있다.(Freedom house의 자유지수)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성에 힘입

나 밀려나고 있다. 저출산율, 이혼증가율, 자살증가율은 세계에서 최고고, 교육비 역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게다가 세계 최저수준의 행복지수와 세계 최고수준의 생활비지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고, 인구의 2%에 달하는 대학·대학생수는 세계1위이지만, 질적인 교육환경은 최악으로 조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 선진국의 대열에 설 것인가, 낙오하여 번방에 떨어질 것인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저들이 과연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이처럼 절박한 처지를 알거나 하고 있을까.

뿐만아. 시대의 징표는 문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들은 개발시대, 군사독재의 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한다.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서 치고받고 자기소모만 계속하자고 한다. 더욱 한심한 일은 전직 대통령의 부패한 아들이 노후준비 아비의 영광과 지역주의에 기대어 보선에 출마해도, 여야를 통틀어 누구 한사람 그레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정의는 이미 사라지고 용기는 더욱 없다. 오직 막강적인 지역주의에 편승하려는 간지만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 국민이 과연 공동체의 내일에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언론인·다산연구사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틀,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노·사 모두에 외면당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오는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가계약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일터에서 내쫓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인력운영 방안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노·사 모두에 외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2007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입법취지에 맞는 확실한 실행 의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업종 특성 등 기업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차별대우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노·사 모두의 피해로 나타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투기과열지구 실패에서 교훈 찾아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비수도권은 과잉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운용한 결과다. 이런 정책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수도권 집값을 잡는데 한계를 보였다.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집값은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가까이인 19.23%나 올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반면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집값은 울산 한 곳을 제외하고 오히려 떨어졌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부산은 0.41%, 대구는 0.71%, 대전은 1.75% 하락했고 광주는 1.42% 올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비수도권의 집값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빚은 것이다.

無等鼓

한국남자골프 20대 돌풍의 주역 강경남(24)은 지난해 11월 17일 한국프로골프(KPGA) 챔피언스 인비테이션에서 우승한 뒤 선배 골퍼들로부터 육을 먹었다. 이 대회는 친선경기 형태에다 상금도 아주 적었는데 우승상금 1천400만원을 쟁기자 '큰돈도 모자라야 기꺼이 먹었다. 이미 상금왕에 올라있는 그녀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은 집중력 덕분이다. 그녀는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270야드를 넘는 장타자이면서도 필드에서 후회 없는 티샷 OB(Out of Bound)는 단 1개도 없었고 고작 세컨드 OB만 2개, 3배 두번 미움을 샀다. 선배들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출구하는 신자에게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편도만 끊으라'고 농성을 했다. '내 때문에 우승 기회가 없으니 미국에서 돌아오지 말라'는 농담이었다. 신지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거

NGO 칼럼

남 부원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앞으로 변화될 세계를 예견하면서 이른바 하이퍼 제국의 등장 가능성을 예견했다. 하이퍼 제국은 시장의 힘이 전 지구에 휘어잡고, 돈의 역사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며, 그 결과 국가 간에 그리고 한 나라 내에서 극도의 부와 극도의 빈곤이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가 극대화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대략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츠(지역화폐운동·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를 제안하고자 한다. 돌봄과 보살핌의 지역공동체운동을 지향하는 레츠는 중앙화폐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달란트와 사회적 기능에 보육 등 돌봄 노동·각종 자원봉사·애견 바자회·안마·장보지기·수지침)를 대안적인 지역화폐로 환원시킴으로써 기존의 자본주의 상품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운동과제로 포착된다. 지역통화시스템은 가계와 기업이 지

'지역화폐운동' 제안 합니다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양극화 문제가 첨예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제기 되어 왔다. 주지하듯이 양극화는 개개인에게 자본시장으로의 획일적인 편입을 강요하고, 죽임의 경쟁으로 내몰며, 빈곤과 경제적 위기는 물론 지역사회 내 지지 네트워크의 붕괴와 개인의 고립을 낳는다. 그동안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양극화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복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안과 마찬가지로 양극화문제도 정부의 정책대응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 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 스스로 자구적 대응이 정책적 대응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민사회적 대응의 하나로 '레

츠(지역화폐운동·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를 제안하고자 한다. 돌봄과 보살핌의 지역공동체운동을 지향하는 레츠는 중앙화폐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달란트와 사회적 기능에 보육 등 돌봄 노동·각종 자원봉사·애견 바자회·안마·장보지기·수지침)를 대안적인 지역화폐로 환원시킴으로써 기존의 자본주의 상품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운동과제로 포착된다. 지역통화시스템은 가계와 기업이 지



말없는 슬개, 말 많은 사람



오래전 '슬개'라는 유혈가를 즐겨 부르던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당시 노래들은 암울한 시대상황 때문인지 대개가 철학적인 가사들이 많다. 슬개도 비슷한 것 같다. 소리 없이 날아다니다 세상을 굽어보는 품을 보고 생각 없이 떠돌며 시류에 떠밀려다니는 인간 군상들의 자각을 일깨운다면서 지나친 생각일까. 우리 동물원 슬개 한 쌍이 알을 낳았다. 지난해 데려왔는데 이번엔 알을 낳아 30일간 정성스레 풀더니 드디어 두 마리의 새끼 슬개가 탄생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다가, 한달이 지나서야 독자들에게 공개한다. 야생동물 새끼들은 한달이 지나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다. 새끼들도 아이가 태어난 뒤 혹 나쁜 병균이라도 옮을까 일정 기간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한달 안의 유아 사망률도 생각보다 훨씬 높다. 동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은 생후 5일째 어미가 잠깐 먹이를 먹는 사이에 몰래 찍은 사진이다. 한 달된 새끼들은 깃털은 없는데 몸집만 커서 돌보아 주어야 할 때가 많다. 두 달여 동안 어미는 열심히 고기를 먹여 새끼를 키운 뒤 날기 시작하면 매정하게 내쳐버린다. 요즘 슬개나 또 다른 새로운 유혈을 낳고 있다. 혁신의 불을 타고, 부리와 발톱을 갈아 원래 제 나이 40에 40년을 더 산다는 슬개의 우화가 마치 진실처럼 전해지고 있는 것. 그러나 슬개의 자연수명은 오직 40년뿐이다. 혹시 말 없는 슬개가 속으로 웃고 있을지 모르겠다. ◇ 최정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웃돈 요구 등 대리운전업체 서비스 형편없다

업무가 주로 대접하는 일이라 본의 아니게 술을 좀 자주 마시는 편이다. 자연히 음주운전을 할수 없어서 대리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 대리 운전 때문에 참 속상할때가 많다. 최근 대리 운전 기사들은 같은 시내라도 대리 운전을 요청한 곳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은 가지 않으려 하는가 하면 가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5천원, 적게는 3천원 이상 더 받으려 해 매타름이 생기기도 한다. 좀 알려진 대리 운전 회사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든지 다른 곳을 알아 보라는 식이고 소규모 업체들은 기본요금 외에 웃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 대리운전은 이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됐다. 다음날 차는 싸야 하고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요긴한 서비스다. 회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경영마인드쯤 가졌으면 한다. 업체들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전자들은 매너도 지키면서 영업을 했으면 한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공익요원을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공보건의를 과전해 보건소를 운영하듯 농촌에도 공익요원들을 과전해 위탁 시설 아동들을 보살펴주어 어린이집 보조 교사 등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공익요원들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준다면 교육 소외지대인 농어촌에 큰 힘이 될 듯하다. 농민들에게는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 만큼이나 자녀 교육도 힘들다.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다. 자녀를 보낼만한 확연도 없고 맡길 곳도

없다. 도시에서는 50만원에 달하는 영어유치원도 보는데, 농촌에서는 영어 유치원은 커녕 유치원 하나도 구경하기 힘들다. 학교도 통폐합으로 줄어들었다.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고 도시로 이사가는 것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가족이나 FTA 때문에 너도나도 농촌을 떠날려고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농촌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철현·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